–너희들이 먹을 씰루쓰가

우리들도 누나처럼 소년단원이 되자요

활살

1956년(6 7)

6월호

3 - AUG - 9
Copy ______ 1960

박상락 그림

혁명가 유자녀들에게 영광을 드린다

송용남 그림

오늘 전체 조선 인민들은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하여 외래 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이룩한 선렬 애국자들의 공적을 길이 찬양하며 당과 정부의 따뜻한 배려속에서 씩씩하게 자라나고 있는 그 유자녀들에게 끝없이 뜨거운 사랑을 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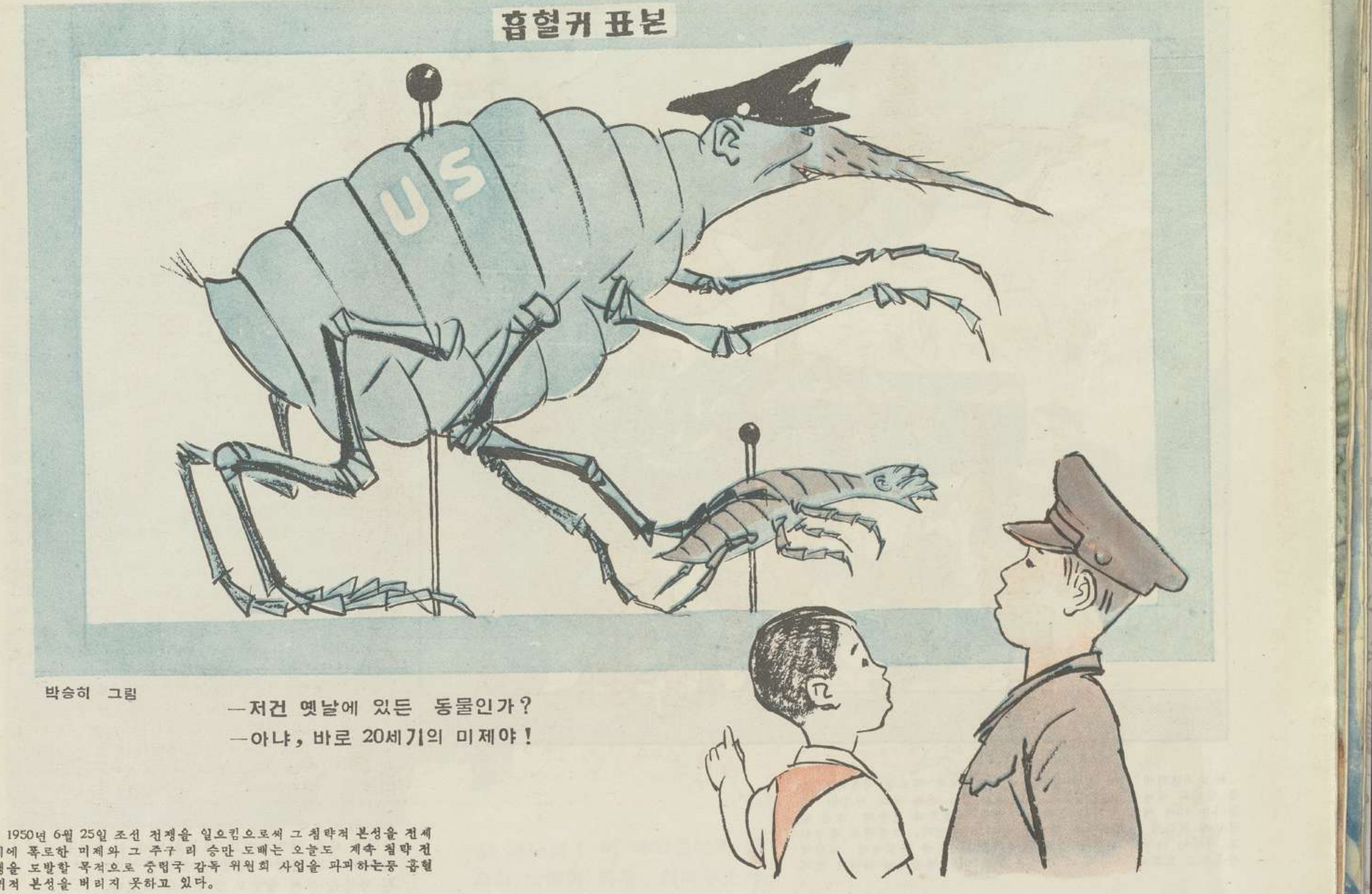
공화국 북반부 어린이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한 생활과는 정반대의 참혹한 처지에 있는 남반부 어린이들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주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반드시 실현되고야 말 것이다.

—다시는 너에게 행복을 빼앗길 수 없다

—언제나 당신은 행복을 베풀어 주시는 군요

리영춘 그림

—너희들이 먹을 씸루쓰가



박승히 그림

—저건 옛날에 있든 동물인가?

—아냐, 바로 20세기의 미제야!

1950년 6월 25일 조선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그 침략적 본성을 전세계에 폭로한 미제와 그 주구 리 승만 도배는 오늘도 계속 침략전쟁을 도발할 목적으로 중립국 감독 위원회 사업을 파괴하는등 흡혈귀적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김현석

리 승만에게 있어선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말이 입안에 굴려 보기만 해도 황금 방울 울리는듯 그 얼마나 매혹적인 음향인가.

종신토록 하는것 만으로 부족하다 관속까지 끌고 가야겠다.

세번째라고 만족할 일이 아니다. 어쨌든 내 살아 있는 한 이 자리는 내만의 것이다.

이 독백은 주지하는바 리 승만의 것이다 리 승만의 독백은 계속된다.

대통령 3선을 위해선 그 어떤 것이고 못할 일 없다

모든 것을 오로지 대통령 3선을 위하여!

우선 리 승만은 선거를 위한 『자유 분위기』의 조성을 명령 하였던바 이 명령에 따라 륙, 해, 공, 3군이 눈알을 부릅떴다 『국가 경찰』이 발톱을 세웠다.

『대통령은 리 승만, 부통령은 리 기붕』이를 반대하는 자는 모주리!…

다—루표! 투표! 미국식 민주주의 투표! 『자유로운』의사 표시, 신성한 정치적 권리의 행사.

그런데 『대통령』립후보자 조 봉암은 암살을 피하여 종시 투표장에 나타나지 못하였고 『부통령』립후보자 장 면은 은밀히 투표장에 나타났다가 곧 다시 서울에 있는 외국 외교 사절들의 구역내에 숨고 말았다.

야당인 『민주당』의 『선거』운동원 1천여명이 리 승만 경찰에 의하여 테로를 당하였으며 30개소의 『민주당』지방 사무소들이 테로단의 습격을 받았다.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에서는 이 동리의 수 많은 주민이 선거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개표 결과는 유권자 수 보다 투표자 수가 150명 더 많았다.

투표장들에서는 이런 진기한 응답도 있었다.

유권자—『투표하려 왔소이다』

선거위원—『당신의 투표는 이미 끝났소이다』

도대체 이번 선거가 이런 식이어서 서울시 룡산구 룡산동 2가 제1 투표소 같은데서는 선거 불참가자의 투표 용지를 모주리 리 승만 『지지표』로 투표함 속에 집어 넣었다.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의 『감시』소조는 부산 부근의 한지방에서 리 승만과 리 기붕의 이름이 이미 씌여 있는 투표 용지 1천매를 발견하였다.

『국군』장병들은 하낫 둘 하낫 둘 발을 맞추어 투표장으로 나아갔다.

전투 훈련 그대로 사단장의 『차렷 투표 했!!』구령따라 투표하였다.

이렇게 선거는 진행 되였건만—

서울을 비롯한 많은 도시들에서 리 승만은 망신을 당하였다.

서울에서만도 71%의 유권자들로부터 반대를 받았다.

남조선 인민들은 어쨌든 리 승만이는 반대해야 하겠으므로 다른 립후보자에게 투표하였다.

이러하여 『선거』10일 전에 이미 사망한 신 익희가 다수표를 받았다 이에 대하여 신문기자는 쓰기를 『리 승만이가 유령에게 졌다』

그리고 리 승만의 『자유당』독재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은 『자유당』의 리 승만 『총재』다음가는 인물로써 이번 『부통령』 『선거』에 립후보하였던 리 기붕의 완전 무결한 락선으로 표현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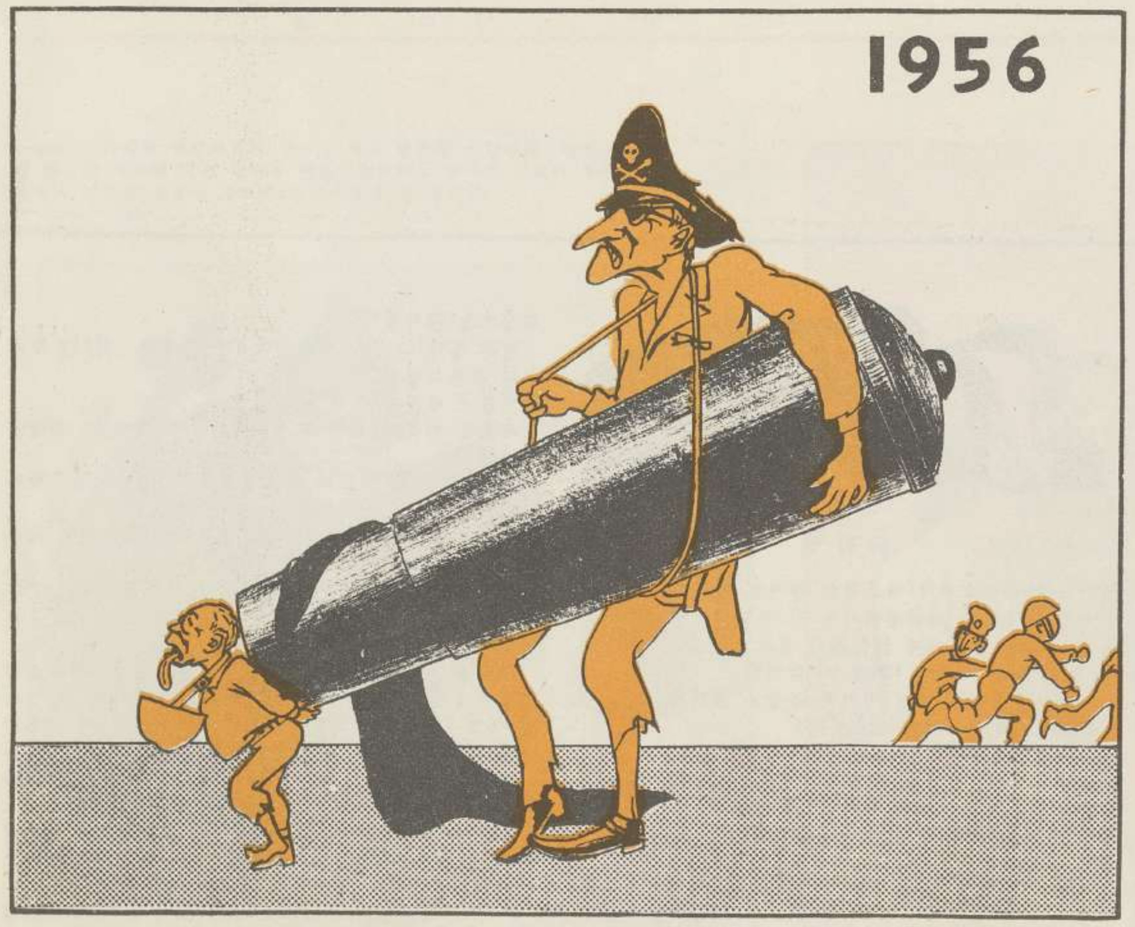
리 기붕의 락선은 리 승만의 거미줄 같은 여명과 함께 이 괴뢰들의 서산락일을 말하는 것이다.

한탄과 실망의 찬바람 부는 『자유당』본부를 찾았던 한 신문기자는 『자유당』본부 풍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선거가 끝난 그날의 자유당 간부들은 쓰거운 입맛만 다시면서 회전 의자를 시르물레 돌려 창밖의 종로거리를 멀거니 바라다 보고 있었다』고…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되였다

바로 6년전에 미제 침략자들은 리 승만 매국 역도를 사촉하여 동족 상잔의 내란을 도발케하고 소위 유·엔의 간판 아래 자기를 추종하는 16개 예속 국가의 무력까지 동원 하였으나 영웅적 조선 인민들에 의하여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이에서 교훈을 삼으려 하지않고 거듭 북진전쟁 도발에 광분하고 있으나 미제와 리 승만은 더욱 더 고립상태에 빠지고 있다



송용남 그림

박노을

미제의 피묻은 발톱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남반부 어린이들의 처지는 어떠한가? 7만명의 전재고아들이 의지할 곳 없이 문전 걸식하고 있으며 30만 명의 전쟁과부에 달린 70만 명의 어린이들이 기아에 울고있는 것이 오늘의 현상이다。

여러가지 이야기는 그만두고라도 서울 룡산구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한 한 소년의 이야기를 캐여 여기에 그 한면모를 들추어 보기로 하자。

* * *

소년의 나이는 열넷, 고생에 쪼들리고 시달린 사람들의 경력이 대개 그러하듯이 그는 열네살 어린 나이었만 벌써 많은 직종의 경난을 갖고 있었다。

소년로동으로 1년(그러나 성인조차 200만 실업자가 허덕이는 땅에서)그직업도 오래 계속 되지는 못하였다。

구두닦기 신문팔기 쓰레기통의 휴지걷 우기……무엇을 하면 먹고 지낼가 소년의『직업』은 달에 달마다 변해갔다。

굴상자를 걷어모아 얽거놓은 판자집 속에 어머니는 날에 날마다 병으로 누어있는데『국군』에 끌려간 형은 5년이 넘었어도 소식조차 없다。

『형이 돌아오면 우리집 살림도 펴울 날이 오겠지』—소년은 이런 한가닥 희망을 품고 두식구의 호구지책을 위해 거리를 헤메 돌았다。그래도 구두 닦기보다는 났다하여 누구의 소개를 얻어 룡산구에 있는 미군 대위 톰손의 개인 심부름'군인 하우스뽀이가 되기는 석달전 일이 였다。

인간 이하의 궂은 일이라도 시키는대로 고즈란히 그는 꼬박꼬박 일을 했다。

처음 한달 약속한대로 월급을 받아 든 소년은 그래도 기뻤다。또 한달… 월급은 보름이 늦더니 석달이 넘은 이달은 아직 월급도 받지못한 그였다。

일요일 아침이였다。지난밤 곤드러지게 취하여 잠에 들었던 톰손대위는 요란한 전화 벨 소리에 잠에서 깨였다。앵앵거리는 전화통을 새여 간드러진 녀자의 목소리가 소년에게 까지도 들려왔다 또 무슨 야회의 약속인 것에 틀림 없었다。

『사진? 오오 좋습니다, 내게 있는 카메라로…』 대위는 히죽히죽 웃음까지 띄우며 전화를 끊었다。

다음 순간이였다 휘 담벽을 둘러본 톰손 대위는 눈에 충혈을 일으키면서 소년을 노려보는것이였다。

『어쨌어?이놈 네가 내 카메라를 훔쳤구나?』

소년에게는 청천에 벽력같은 말이였다。『대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어제저녁 대위님께서 혹시…』

『깟뗌! 네가 손 버릇이 나쁜 것은 내가 알구 있었다』톰손은 대답도 들을 필요가 없다는듯 가죽채찍을 감아 쥐였다。

소년은 비명 속에 쓰러졌다。얼마나 지났는지 기억도 몽롱한데 소년은 너털 웃음소리에 놀래 깨였다。톰손의 옆에는 또하나의 미군인 톰손의 친우가 서있었으며 그들은 카메라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사유는 간단한것, 어제밤 톰손이 하두 취하였기 때문에 그의 친우가 그 카메라를 전사 하였다가 돌려주며 온것이였다。

소년은 분노와 억울함으로하여 핵 일어나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여 나왔다。

순간이였다 한낮에 울린 총 소리와함께 현관 층층대 아래로 쓰러진 그 소년의 죽음은…

소년을 쏘아 눕힌 그 사유도 간단한것, 소년이 그 사실을 퍼뜨리고 나면 미군의 체면에 손상을 줄것이니 입을 봉해버리려고 취한 악귀같은 행동에서 였다。

인간백정 미군 톰손은 그러고도 태연히 뻔뻔스러운 전화벨을 울리였다。

『룡산경찰서요? 미8군 파사입니다 조선소년 도적질하다 들키였습니다。내앞에 창피 당하자 그는 자살하고 말었습니다。네 빨리빨리 시체 처리하시요』

소년의 자살 사건은 이렇게 조작되였다。

인간백정 미군의 만행은 반드시 만천하에 폭로될것이고 인민들의 보복을 받을것이다。

미국식「교육」정책

박승히 그림

—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딸라의 노예가 되게 하여주소서…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겼다

—남반부에 대한 스켓취—

많은 학교들은 미군이 차지하고 파괴된 학교는 복구하지 않아 현재 남반부에서 교실 부족수는 18,193개나 된다。그럼에도 미제의 식민지 우매화 정책에 충실한 리승만 도배는 작년에만도 150개의 국민학교를 모리배에게 팔아 먹었다。이로 인한 극도의 교실난과 15종이나 되는 잡비는 남반부 어린이들에게서 배움의 길을 빼앗고 있다。

미국의 식민지 략탈정책과 미국식 생활양식, 땡 문화 인간 살육 문화는 남반부의 천진란만한 어린이들을 부지불식 간에 범죄의 구렁텅이에로 몰아 넣고 있다。이리하여 6개소의 소년 형무소는 아동 범인들로 초만원을 이루고 있다。

남반부에서는 작년 10월중 서울, 광주, 대전의 세 도시에서『혈액은행』에 피를 팔고 몸이 쇠약하여 죽은 학생이 알려진 것만 해도 13명이나 된다。이처럼 미제 흡혈귀들은 남조선 어린이들의 그 조그마한 몸에서 까지 피를 빨아 먹고 있다。

백인균 그림

3선후에 받는 첫 지시

—중립국 감독위원회에 구애되지말고 계속 전 쟁 준비 해라

안창수 그림

정전이래 대량의 작전 물자를 반입하며 남조선 괴뢰군을 증강시키는 등 부단히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새 전쟁 도발에 광분해 오던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최근에 와서 중립국 감독 위원회 시찰소조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려는 비법적 결정을 채택하였는바 이는 남조선에 있어서의 군비 확장을 더욱 강요하기 위해서다。

4% 짜리의 처지

유 항 림

1950년 6월에 덜레스가 남조선에 기여들어 3·8선 일대를 시찰하고 나서 미군이 뒤에 있으니 념려 말고 북조선으로 침공하라고 지시했던 사실은 온 세계가 다 아는 바다。

그리고 『미군이 뒤에 있다』는 량자의 이 관계는 3년간의 전쟁에서 이미 세상에 여실히 알려졌다。 앞으로는 『국군』을 내몰고 미군은 『뒤에 있었다』는 사실을—。이렇게 탄알받이와 독전대와의 위치는 원칙적으로 준수되여 왔다。

애정이나 도덕이나 인명까지도 장부상의 금액으로 밖에는 표시할 줄 모르는 미국 전쟁상인들은 자기네 탄알받이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도 독특한 법칙으로 장부에 기입했다。 미군 1개 사단을 기르는 돈이면 『국군』 25개 사단을 기를 수 있는만큼 『국군』이 입은 손해는 언제나 4%로 축소되여 평가했으며 4% 짜리를 물쓰듯 하는데 조금도 겁나하지 않았다。

그러나 4%의 비용으로 장비된 『국군』이지만 거기 편입된 인원들은 결코 목숨의 4%만을 가지고 전선에 나설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전쟁상인들의 소비계획을 달가워 하지 않을것은 사실이다。

이런 모순을 미군 자신들도 심각히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 가끔 부닥치군 했다。 도망질칠 때다。 패주가 시작되면 탄알받이가 독전대의 총뿌리 앞에서 행동하는게 아니라, 독전대가 탄알받이들의 총뿌리 앞에서 도주해야 되기 때문이다。 온전한 목숨을 4% 짜리로 여기여 랑비해 오던 자들이 전률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미군은 『국군』뒤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싸우면서도 자동차들은 언제나 후방을 향해 돌려 놓치 않고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도주가 시작되면 한 초가 바쁘게 『국군』보다 사정거리 이상을 앞서야 한다는 『예견성있는 전법』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리 승만의 사기 희극

백인균 그림

리 승만은 『자유분위기』니 『민주주의 선거』니 하고 떠벌리고는 횡포한 테로와 강제 찬성투표, 대리투표 그리고 『기술적 방법』이라고 하며 준비해 두었던 리 승만 찬성표를 넣은 선거함을 슬쩍 바꿔 놓는등 온갖 사기 협잡의 방법으로 겨우 50%의 『찬성표』를 모장하고는 『리 승만은 다수표로 당선되였다』고 선거 결과를 날조하였다。 이것은 다름아닌 『미국식 민주주의 선거』 방법이다。

벼룩의 간 내여 먹기

미제의 예속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여지없이 황폐화 되고 있는 남반부 경제는 리 승만의 군비 확장 정책으로 더욱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 «유·엔 한국 부흥위원단» 조차도 제9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에서 남조선 경제형편은 «현 무력 규모의 일부분 만큼도 유지할 능력이 없다»고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장진광 그림

울어야 옳으냐? 웃어야 옳으냐?

신 흥 순

울어야 옳으냐? 웃어야 옳으냐?
울지도 웃지도 못할 요세상!

이번 5월 15일 "대통령" 선거통에 누가 만들어낸 류행가인지 모르나 입에서 입으로 도시에서 지방으로 남조선 방방 곡곡에 이 노래가 퍼져있다。

◇ ◇

『김 순경!』

『네!』

서장은 순경들을 한번 다시 훑어보고 나서 교챙이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다。

『신 익희가 죽은데 대해서 땅을 치고 우는 놈이 있다는걸 아는가?』

『모릅니다』

『리 순경!』

『저도 처음 듣습니다』

『박 순경!』

『알아 보겠습니다』

『원 이런 바보들! 에—민주당 당수가 죽은걸 애통히 여기는 놈은 틀림없이 이번 선거에 리 대통령을 반대해 나설놈이야! 그러니까 당장 나가서 우는 놈은 모주리 잡아드리란 말야! 알았어?』

『넷!』

서장의 긴급명령이 내리자 순경들은 고양이 냄새맡듯 울타리 구멍과 창문가에 귀를 강구어 살피었다。

◇ ◇

김로인의 집에서 난데없는 곡성이 났다。

『세상에 이런 원통할데가 어데 있소? 내 눈에 흙들어 가기전엔? 잉!』

부인의 목메인 울부짖음과 분노에 찬 령감의 음성이 섞져 나왔다。

『옳다 됐다!』 김 순경은 재빨리 싸리문을 박차고 뛰여 들어 섰다。

『왜 울구 있어?』

『…………』

『어째 우느냐말야? 어?』

『아들이 죽어서 우오』

『아들? 거짓말 마라! 원통허다? 뭐가 원통헌가? 신 익희 죽은데 뭐가 원통해? 어?』

『웬 내다 버릴 신 익희는? 난 그런사람 알지도 못허우』

『이번 대통령 립후보 헌 사람 몰라?』

『여보 나리』

부인은 치마로 눈을 닦으며 순경을 처다 보았다。

『국군에 나갔다가 다리 병신이 돼서 돌아 왔던 내 아들이 죽었다우。 아이구 세상에… 제명에두 못죽구 제손으로 제목숨을…』

그는 말문이 막히여 다시 치마자락으로 얼굴을 가리웠다。

『거짓말 마라! 죽었단 아들 시체가 어딨어?』

『방금 묻구 오는 길이요』

『누가 속아 넘어갈줄 알아? 잔소리 말구 경찰서로 가자!』

『경찰서? 아니 여보! 아무리 경관세도가 빨래줄 갈기로니 자식 죽은데 울지도 못하게하는 권한 있소?』

『옳지 경관한테 대든다? 이놈의 령감이? 어서 가자!』

그리하여 김 로인은 원히여 갔다。

◇ ◇

『천하에 죽일놈들 같으니! 슬퍼서 운다고 다 잡아가는구나! 허허허…』

이 광경을 바라보는 박로인은 하두 어이가 없어서 혼자말을 하고는 껠껠 웃었다。

『왜 웃어?』

어디서인가 다람쥐 새끼처럼 뛰여 나와 박로인 앞에 다가선 것은 리 순경이다。

『뭐가 웃으우냐 말야?』

『웃는데 뭐 잘못된 일 있소?』

『경관을 보구 함부로 웃어? 왜 웃는지 다 안다!』

『아니 맘대로 웃지도 못헌단 말요?』

『경관을 보구 웃는놈은 우는놈이나 마찬가지란 말야! 너도 가자!』

『어디루요!』

『경찰서 몰라?』

박 로인도 끌려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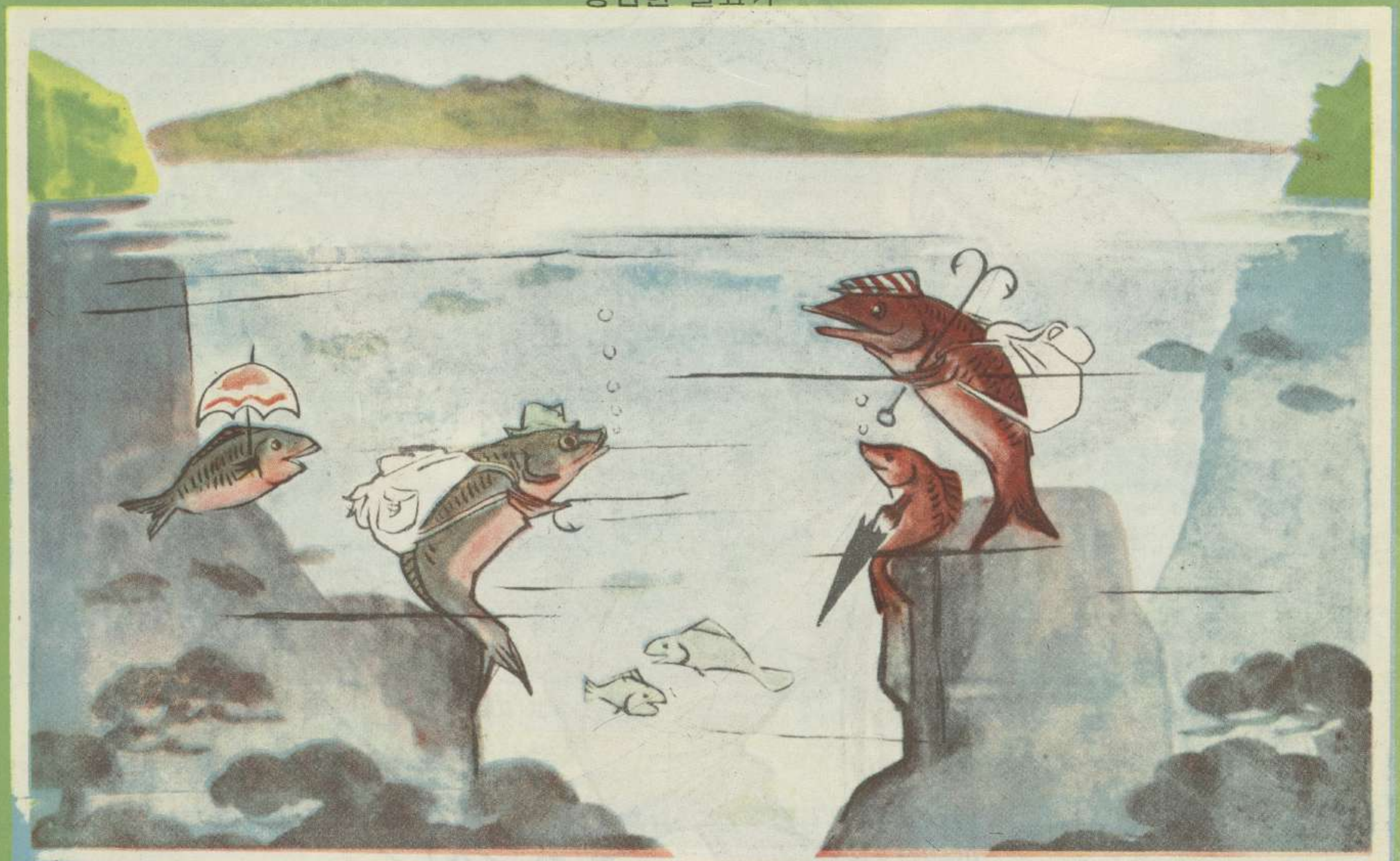
김로인은 울었다고 잡혀가고 박로인은 웃었다고 잡혀가고—

◇ ◇

울어야 옳으냐? 웃어야 옳으냐?
울지도 웃지도 못할 요세상!

이 노래에는 오만무례한 미제와 리 승만도배의 반인민적 정책에 대한 인민들의 증오와 저주의 칼날이 숨겨져 있다。

등산한 물고기



박승히 그림

—나는 대동강에서 왔는데 당신은?
—나는 청천강에서 열두 삼천리 유람을 왔소!
—그럼 나와 함께 동행이 되겠수다 그려!
—동행 뿐이겠소 앞으로도 여기서 함께 삽시다

우리들의 할 일이 없어졌군…

박승히 그림

—자 보라구! 저렇게 강물을 끌어들여선 저수지를 만들어 놓았으니 우리 할일이 없게 됐단 말이야…
—그게 자연 개조란 걸세… 그러니 우리도 가물이나 장마로써 세도 부릴수가 없게 된것만 사실이지…

대동강 물과 청천강 물을 열두 삼천리벌에 생명수로 끌어대는 평남 관개공사가 완공되였다。바다와도 같은 연풍저수지 연연 2,000리가 넘는 수로 이 거대한 자연 개조 공사에 의하여 3만여 정보의 논에서 6만여톤의 황금 낟알은 쏟아져 나오게 되였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는 성과

—어머니 저것봐요 물이 굉장히 쏟아져 나오지…
—그게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관개 저수지 란다

—어느새 저런 큰 공장들이 복구 건설 됐군요…
—공화국 북반부의 어데를 가보나 다 놀라웁지요

—평양이 영 몰라 보리만큼 훌륭하게 건설 됐어요…
—사실 정전후만 하더라도 저기가 모두 재'데미 였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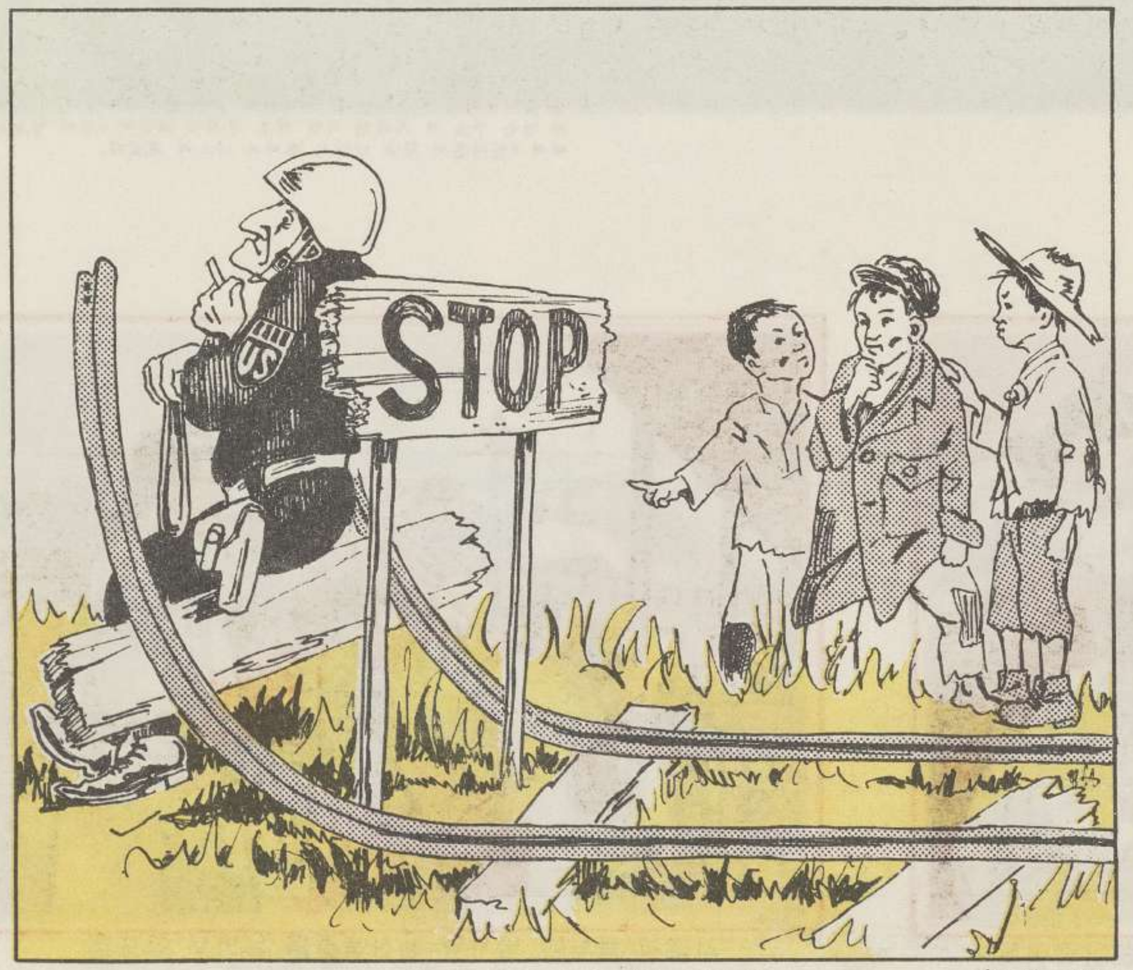
—저렇게 풍부한 물자와 생산품들을 남반부 동포들에게도 어서 나누어 주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리영춘 그림

—너희들이 먹을 씰루쓰가

우리의 념원은 달성되고야 말것이다

—우리 조국이 통일되면 철도선은
저 남쪽 끝까지 쭉 뻗게 된단다
—그럼 그때엔 남조선 애들과 한
자리에서 공부 할수 있겠군요



송용남 그림

—저놈들 때문에 우리는 북조선
애들처럼 행복하게 살수 없지
—하루속히 저놈들을 몰아내야 돼

어머니의 마음

용석이를 잡으며 오지않나?!

어머니는 밖에서 나는 발자국소리에 가슴이 떠끔했다。

『어머니!』

문이 열리며 세째아들 용남이가 들어서는 것을 보았을 때에야 어머니는 후—하고 안도의 한숨이 나갔다。

『인제 오니?』

어머니는 서글픈 마음으로 아들의 신닭이 도구를 받으며 물었다。

어린것들이 공부는 고사하고 남의 신이나 닦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어머니는 가슴이 아팠다。 그럴 때마다 그는

(뭐 용남이뿐인가 앞뒤'집 애들두 다 그런데)하고 자기를 위로하며。

(나는 좋은 세상을 못보고 반백을 살았지만 아이들은 잘 키워서 락을 보게 해야지)하는 일루 희망으로 이를 악물고 일했었다。

『어머니 옆집 영수가 그러는데 북조선에선 학교 못 다니는 아이들이 없대』

용남은 부러운 듯이 말했다。

『그리구 방학 때 금강산으로 가서 즐겁게 노는 걸 록음 방송으로 들었대요』

그리고는 푹 한숨을 쉬었다 아들의 이 모양을 보는 어머니는 가슴이 막 찢어지는듯 했다。

『야, 우리는 통일되면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리구 어머니 북조선에선 이번에 인민군대를 8만명이나 줄인대요』

『그래? 그런데 개놈들은 자꾸 군대를 뽑는구나 여기서두 북조선처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니』

어머니는 국군 징집을 피하여 해'빛도 못보고 움 속에 숨어 있는 둘째아들을 생각하며 한숨을 쉬였다。

그런데 이틀날 어머니는 배' 돌질을 하다가 깜짝 놀랐다。

『야 이게 웬 일이냐?!』

어머니는 말작한 사람처럼 정신없이 맞받아 나갔다。 용남이가 입에서 피를 흘리며 축 느러져 동무에게 업혀 들어온 것이다。 용남이를 업고 온 아이가 헐덕거리며 사건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용남이가 자기께 온 미국놈의 군화를 닦으면서 나보구 «야! 언제나 우린 북조선 아이들처럼 살겠니» 하고 말하는 걸 그놈이 자기 보구 쑥덕거린다구 발'길로 용남의 얼굴을 탁 거더찼어요』

『아니 그렇게 생?! 이걸 어쩌나 이걸! 음 죽일놈』

어머니는 용남이를 업고 허집지접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의사는 돈이 있는가 부터 물었다。 어머니는 래일 꼭 가져다 주겠다고 사정을 했으나 의사는 듣지 않았다。 어머니는 두손으로 가슴을 굳어쥐며 돌아섰다。

(이놈의 세상! 돈만 아는 세상!)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그는 용남이를 업고 허벅허벅 병원을 나왔다。

용남의 병은 점점 더 도졌다。 그는 신음소리를 내며 숨이 가빠하다가는 갑자기 잠잠해지군 하였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커다란 손이 가슴을 움켜쥐는 듯이 숨이 막혔다。

(이렇게 앓아도 약 한첩 못쓰고…)

어머니는 가슴을 갈기갈기 쥐어뜯고 싶었다。

『이 미국놈들을! 음…』

그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어머니는 맺히는 눈물을 씻으며 줄곧 용남의 머리맡에서 밤을 새웠다。

어머니의 지극한 간호의 보람인지 용남의 병은 며칠이 지나자 좀 덜리는 기색이 보였다。 어머니는 한숨이 놓이였다。 이제는 용남이가 무엇이라도 좀 먹는 것을 보고 싶었으나 돈이 없어 사다 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런데 어머니에게는 새로운 화가 덮치었다。

순경들이 새벽에 달려들더니 움에 있는 둘째아들을 끌어냈다。

『안돼요 안돼요。맏아들을 끌어내다 죽이구 또!』

어머니는 가슴을 빡빡 허볐다。

『그러면 그게 무슨 죈지 알아!』

순경은 눈을 부릅떴다。

『그게 죄라구? 이놈들아 내게는 아들 삼형제 고이 키르겠다는 죄 밖에 없다!』

리 운봉

쪽집개 소식

—최근 남조선 소식 에서—

혼돈하지 않게

『여러분이 혼돈하지 않게 간단히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립후보자들의 기호가 있습니다。이렇게 1, 2, 3으로… 그런데 바로 이 3자 밑에다 0을 그려 투표하면 됩니다』

지난 5월 15일 남조선에서 진행된『대통령』선거장 마다에 참관하고 있던『선거위원』들은 위풍 있게 악수도 청하고 또 코가 땅에 닿도록 굽실거리기도 하면서 유권자들을 맞이했다 그리고는 아주『친절』한 태도로 투표 방법을 설명했다。 하기야 그럴수 밖에… 립후보자 기호 1은 조 봉암이고 2는 신 익희이고 3은 다름아닌 바로 리 승만인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자유 분위기』는 친절한 강요와 랭소 띄운 감시로써『보장』된 것이다。

수고할 것 없이

선거장에 유권자가 나타나자 반겨 맞이한『선거위원』은 유권자 명부를 뒤적이더니『뭐 수고할 것 없이 돌아 가시지요!』하고 말했다。

『수고 할것 없다니요?』 유권자는 무슨 까닭을 몰라 뒤물어 보았다。

『당신의 투표는 끝났으니 잔말 말고 가란 말이요』일변한『선거위원』은 소리를 꽥 질렀다。 사실 그의 투표는 이미 끝난 결로 되여있었다 리 승만에 대한 반대 투표를 우려한 나머지『선거위원』들의 손에 의하여 이미『대신 투표』를 했으니까… 이러한『기술적 방법』은 수 많은 기권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실제 등록된 유권자수 보다도 150표나 더 많은 표가 쏟아져 나온 서울시 내자동을 비롯하여 각지에서 나타났다°

질서를 위하여

『국군』들도 선거장에 끌려 나갔다 어데 까지나 군대식으로 대오를 지어서… 또 이날은 더욱 엄격한 규률이 요구되였다。

『소대 단위로 투표 용지를 나누워 주니 자기 의사대로 표시를 할 것。 그러나 선거장의 질서를 위하여 투표지는 소대장이 모아서 나에게 가져올 것』

『헌대 참모』의 감시하에서 내려지는 중대장의 엄격한 명령이다 그러니 사병들은 이미 주의 받은 대로 표식을 하지 않고선 자기 지휘관들 손에다 투표지를 내 밀수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형식은『자유의사』에 의한 표시이나 내용은 지휘관의 명령에 의한 집행으로서 리 승만에 대한 지지표를 조직하자는 것이다°

좋은수가 있을테니

『여보! 이건 특별히 배급하는 표란걸 잊지 말고 15일날 선거함에다 꼭 넣어야 하오, 그럼 좋은 수가 있을테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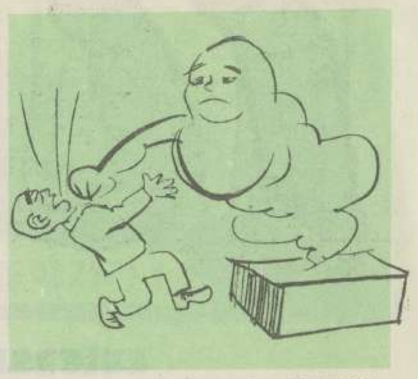
경상북도 영일군을 비롯한 각지에선 "좋은 수가 있을테니" 라는 달콤한 미끼로써 인민들을 낚을려고 하던 수천매의 쪽지가 발견되였다。이건 두말할것없이 선거가 실시되기전부터 날조된 리 승만에 대한 찬성표였다。『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남조선 인민들의『생활 안정책』에 대하여 떠들어 댄 리 승만은 "좋은 수가 있는" 자신에게『특별 배급표』로써『약속』을 리행한 것이다。

유령한데 경칠 줄이야…

어쨌든『대통령』감투만은 도로 뒤집어 쓰게 되였건만 그대로 리 승만은 발발 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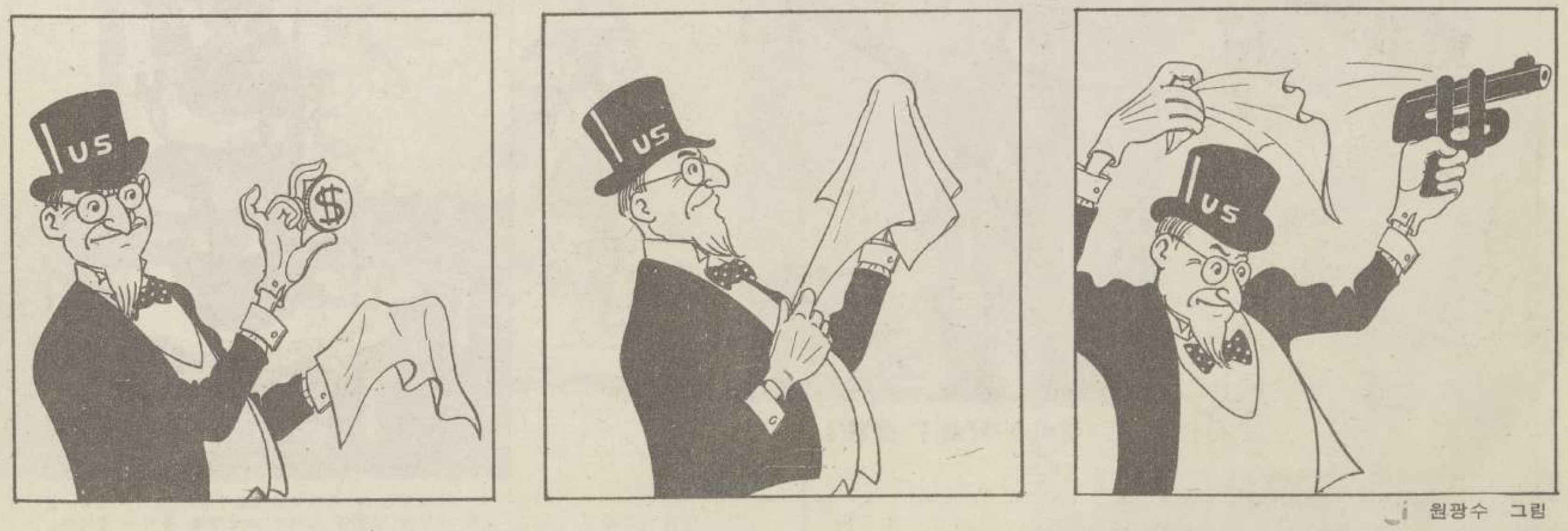
그건 아무리 간악한 폭력과 "기술적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제낮짝에 침뱉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선 서울시만 하드라도 71%가 리 승만을 반대하였고 더우기나 선거가 있기 10일전에 죽은 신 익희 보다도 8만표나 떨어 졌으니 결국 유령한테까지 보기 좋게 걷어채운 것만 사실이다。



김 동 희

미국「원조」



원광수 그림

세계 평화에 대한 또하나의 기여

국제단평

▲ 락제생

인도의 어느 학교에서 지리 시간에 다음과 같은 문답이 있었다.

선생『미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위치를 말해 보시오。』

생도『미국은 동남 아세아에 있습니다。』

와아 하고 웃음이 터졌다。 전체 생도들의 조소를 받게 된 생도는 얼굴을 붉혔다。

선생『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소。 그러다가는 락제하겠소。』

생도『미국은 동남 아세아 동맹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동맹의 우두머리가 아닙니까?』

선생『인도나 비르마가 아메리카주에 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동남 아세아에 있지 않소。 이 사실을 모르는 생도는 지리에 락제할게고 이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는 정치가들도 또한 정치활동에서 락제할게요。』

▲ 토이기와 태서양파의 관계

아침 해'발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이는 바다가 바라보이는 콘스탄친노쁠의 어느 언덕 우에서 토이기인의 한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귀여운 손자야, 저기 북쪽에 있는 바다가 흑해이고 저기 남쪽으로 보이는 것이 다다넬쓰 해협인데 그리로 더 가면 지중해가 된단다。』

『그러면 태서양은 어디 있는가요?』

『태서양까지 가려면,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열 개의 나라들을 지나고 열 개의 국경들을 넘어야 된단다。』

『그러면 우리 토이기는 북태서양 동맹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옛말을 하나 하겠다。 옛날 마호메트는 산을 바라보며 산아 내게로 오너라 하고 고함쳤단다。 그러나 산은 오지 않았지… 산이 어떻게 걸어가겠니?! 그러니까 마호메트는 그럼 내가 네게로 가마 하면서 산께로 걸어갔단다。』

『할아버지, 그러면 토이기가 북대서양 쪽으로 걸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귀여운 손자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니? 태서양이 우리게로 올 수도 없고 우리 국토가 태서양으로 갈 수도 없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에게서 태서양을 향해 간 것이 있단다。 우리 토이기에 대한 지배권과 석유 기타의 많은 자원들이 북대서양에 면해있는 나라 즉 미국으로 가고 있단다。 이것이 바로 북대서양과 토이기와의 관계란다。

▲ 방음장치

일본 도야마의 미군 비행장 부근에 있는 국민학교에서는 학과 교수가 점점 더 곤난해 졌다。

귀청을 째듯 하는 비행기의 폭음 때문에 선생부터가 말을 멈추고 멍청히 서있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한시간에도 여러 차례고, 또 선생의 설명에 생도들이 귀를 기울일수 없을만큼 폭음이 소란스러운 때가 많았다。 그리고 배워주고 배우는데만 곤난할뿐 아니라, 생도들 중에 신경병이 차츰 많아졌다。 매일 같이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폭음을 듣고 있는 어린 학생들 중에는 얼혼이 빠져서 멍청해진 소년이 늘어가는가 하면 밤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깨서는 발작을 일으키는 소년도 생겼다。 선생들도 학부형들도 진심으로 걱정하기 시작했다。

일본 각지에 미군 비행장들이 수다히 있는만큼 이런 사정은 도야마에만 있는 것은 아니였지만, 이 학교에는 다행히도 유력한 학부형들이 있었던 관계로 그들의 주렴으로 교실들에 방음장치를 할수 있었다。 담과 천정에 방음장치를 하고 창들을 이중창으로 꽉 봉하고 통풍환기는 따로 장치했다。 그리하여 일본서도 유일한 방음 학교가 생겼다。

이 학교의 한 선생과 어느 학부형 간에 다음과 같은 대화과 있었다。

『여름에도 창문을 열어놓을 수는 없어졌지만, 그래도 생도들이 얼마나 명랑해지고 학과성적도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겠소。 쉬는 시간에도 운동장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교실 안에만 있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마는…』

『애들이 기뻐하는 걸 보면서, 운동장에서도 그러고 또 어디서나 저 듣그러운 소리를 듣지 않게 할수는 없는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늘에다 방음장치를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럴수 있습니다。 미군들이 좋아하는 그 소리를 미국에서나 싫컷 지르도록 일본에 있는 비행장들을 어서 걸어가지고 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 항림

EULENSPIEGEL— 독일 『오이렌스삐겔』

독일 풍자 만화 잡지 『오일렌스삐겔』 1956, 17호에서 전재 불란서 만화가 미더브 그림

알제리야에 있어서의 식민주의자

준비! 묘준! 쏘았!

이 그림은 불란서 식민주의자의 야만적인 도살 정책을 풍자하는 만화이다。 피 비린내 나는 탄압은 필연적으로 식민지 인민들의 더욱 큰 반항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식민지 통치 제도의 멸망을 가속화한다 이러한 만행은 마치 식민주의자가 자기의 머리에 권총을 겨누는 것과 다름없다。

ROHÁČ— 체코 『로하츠』

체코 풍자 만화 잡지 『로하츠』 1956, 14호에서 전재 웨스코프 그림

이렇게 최후의 끝장을 볼 작정인가?

이 그림은 영 식민주의자들이 싸이프러스도에 있어서의 그들의 만행과 그리고 그운명을 풍자한 것이다。

—너희들이 먹을 씰로쓰가

hosteni— 알바니야 『호스제니』

알바니야 풍자 만화 잡지 『호스제니』 1956, 2호에서 전재

놀라지마라 당장 돌아가라!

urzica— 루마니야 『우루지까』

루마니아 풍자만화 잡지 『우루지가』 1955, 20호에서 전재 레루 그림

—내품에 안겨주어 원자 아가씨!

—그대와 나는 인연이 없으니 빨리 나가시요!

КРОКОДИЛ— 쏘련 『끄로꼬질』

쏘련 풍자만화 잡지 『끄로꼬질』 1956, 10호에서 전재 유·간파 그림

—나의 심장은 너에 대한 사랑의 불'길로 타고 있다. 오— 아름다운 근동의 장미여 이 불'길이 더욱 타도록 하기위하여 나에게 너의 뜨거운것을 (연유를) 다오

윤 창 우

유 오종(영흥군 소비협동조합 진흥상점 점장)은내심 기뻐하였다。

그것은 낯서른 녀인이 그의 안해를 통하여 말하기를 "돈은 며칠 후에 갚기로 하고 나에게 몇백 메터의 면직물만 넘겨 주세요。그러면—당신에게 적어도 10만원은 차례지게 해 올릴테니" 라고 했으니 판매고도 단번에 올라가고 꿩먹고 알 먹기 아닌가!

열마후 점장 유 오종은 그 낯서른 녀자로부터 술까지 바친 저녁을 초청 받았다。

『선생님과 사모님이 념려해 준 덕택으로 일은 잘 되여가고 있어요。면직물의 대가로 마당에 있는 저 독들에는 쌀이 가득 찼으니 저것만 팔면 면직물의 값을 갚고도 몇만원은 넉넉히 남을 게야요。』

『…그것 참 일이 잘 되여가누만요。이왕이면 여기 수매자금 7만원이 있으니 이것마저 쌀을 사는것이 좋을 겁니다。』

며칠 후 유 오종은 산판을 퉁기였다。월말 실사도 래일 모레로 림박했고 자기 몫으로 들어올「리익」도 계산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왜 오래도록 돌아 오지 않아요, 조합의 장부를 빨리 메꾸어야 하지 않아요』

『…늦어진덜 조합의 돈은 그가 사둔쌀을 팔아서라도 갚으면 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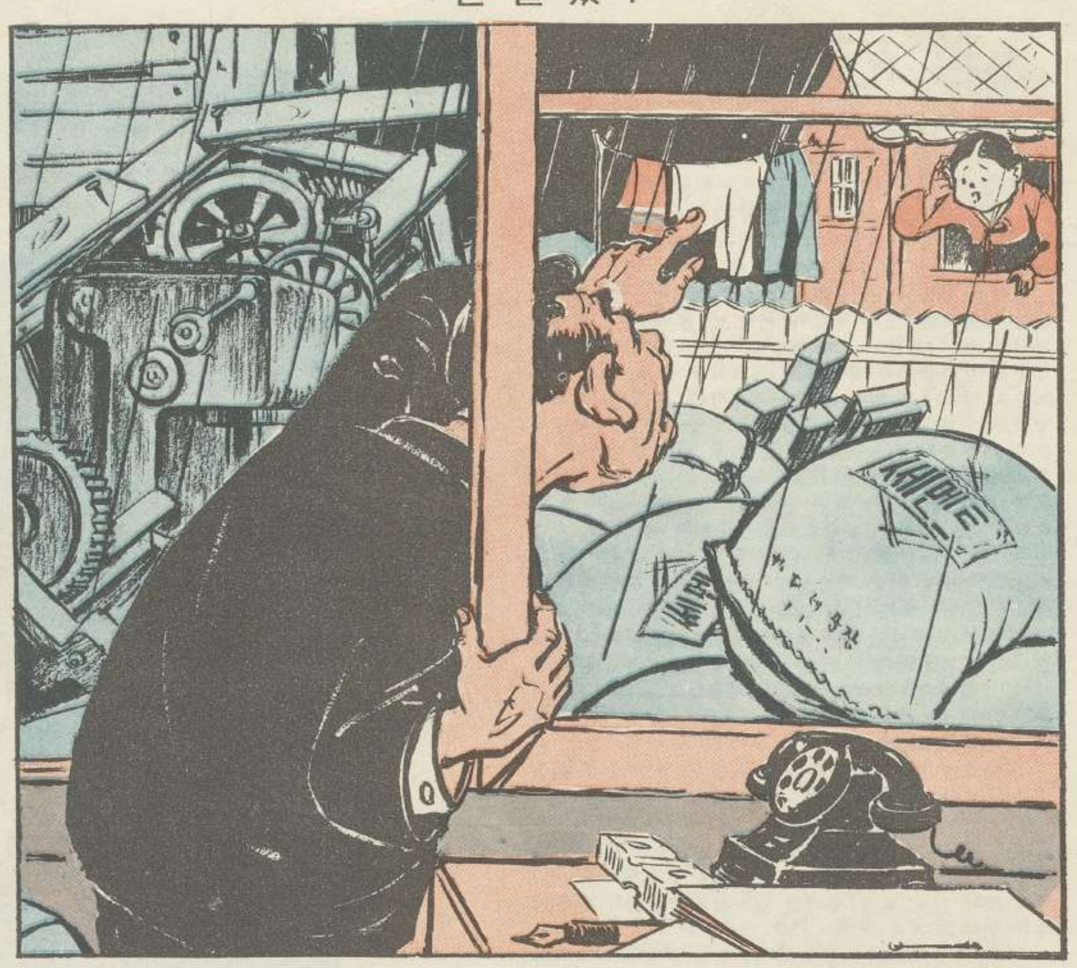
사실 이렇게 만사가 다 "순풍에 돛을단" 격으로 되여 갔다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되였나。

아무리 기다려도 그녀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유 오종의 부부는 쌀독 있는데로 달려갔다。

『…이 못난 사람 봐 쌀은 무슨 쌀! 독이란 독에 쌀은 한 거풀 바께 없고 벼'겨와 겸불뿐이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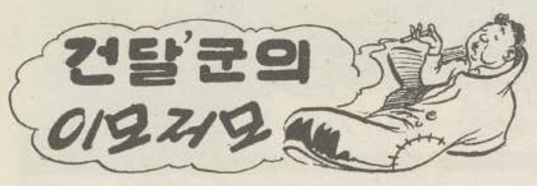
국가의 눈을 속여 한몫 보려던 것이 잘못이였다 결과는 협잡'군에게 속아서 가련한 신세에 떨어졌다.

큰 일 났다



—여보 내옷이 비에 젖소

안창수 그림



그의 신바닥은 어째서 닳았는가

『원 이렇게 바빠서야… 어제 그제 사 신은 신이 글쎄 이렇게 됐어』

작업반장 김 봉도는 종종 종이장처럼 얇아진 신바닥을 동무들한테 보이군 한다。그러면 그의 신바닥이 어째서 그렇게 닳았는가?

작업반장 봉도는 관리 위원장에게 그닥 쓸데도 없는 이야기를 지지리 느려놓다가 해가 낮이 되여서야 어슬렁 어슬렁 밭으로 나갔다。그렇나 작업 장이 가까워지자 그는 돌연 걸음을 재우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는 반원들을 보고 머리를 빽빽 긁으며

『원 이렇게 바빠서야…』

하고 중얼거리고 나서 작업반원들이 김매는 것을 죽 돌아보고 몇가지 지시하고는

『2분조에 또 가 봐야지』

그는 온 종일 이렇게 할일도 없이 이 분조 저 분조로 분주하게 돌아다니다가 해질 무렵에야 비로서 호미를 잡았다。그러나 반시간도 못되여 피가 든 그는

『로력일 기록대장을 정리하며 가야지 몸을 열 조각으로 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며 일터에서 살짝 빠져 나왔다。

한참 다우쳐 걷던 그는 뒤를 돌아다 보고 반원들이 보이지 않게 되자 걸음을 늦추며 아주 만족스런 웃음을 지었다。

고 용 근 성

조합원 최영감은 잔뚝 논두렁에 누웠다가 다른 사람들이 작업을 시작할 때에야 일어나 우물우물 담배를 말기 시작했다。이리하여 그는 한 십분 먹고 떨어졌다。

작업을 끝마칠 시간이 되였다。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던 최 영감은 급히 소 리쳤다。

『자—모두들 그만 합시다!』

『조금만 더하면 되겠는데 마저 하구갑시다』

그러자 최영감은 눈을 부릅뜨고

『오늘 못하면 래일 하구 그명지, 그렇게 일 하다간 사람이 견뎌내는 재간이 있는가! 작업 규률은 작업규률 대로 지켜야지』

조합일은 내 일이다 조합이 부유해지면 자기도 부유해진다는것을 그는 알지못했다。

그건 내 할일이 아니니까

지금 협동조합에서는 모를 제때에 내려고 로소가 온통 떨어나 모를 내기에 눈 코 뜰 사이가 없다。 각 사무기관들과 학생들까지 협조를 나왔다。

그런데 조합 부기원만은 사무실에 들어 앉아 입이 째지게 하품을 하고는 소뿔로 물부러를 깎기 시작했다。그때 어머니가 바쁜 걸음으로 들어오며

『야! 바쁘지 않으면 모내는데 좀나가 보려무나, 저렇게 바빠 돌아가는데…』

『일 없어요 우리조합에서 부기원은 일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두 바쁜 때 좀 도와주면 못쓰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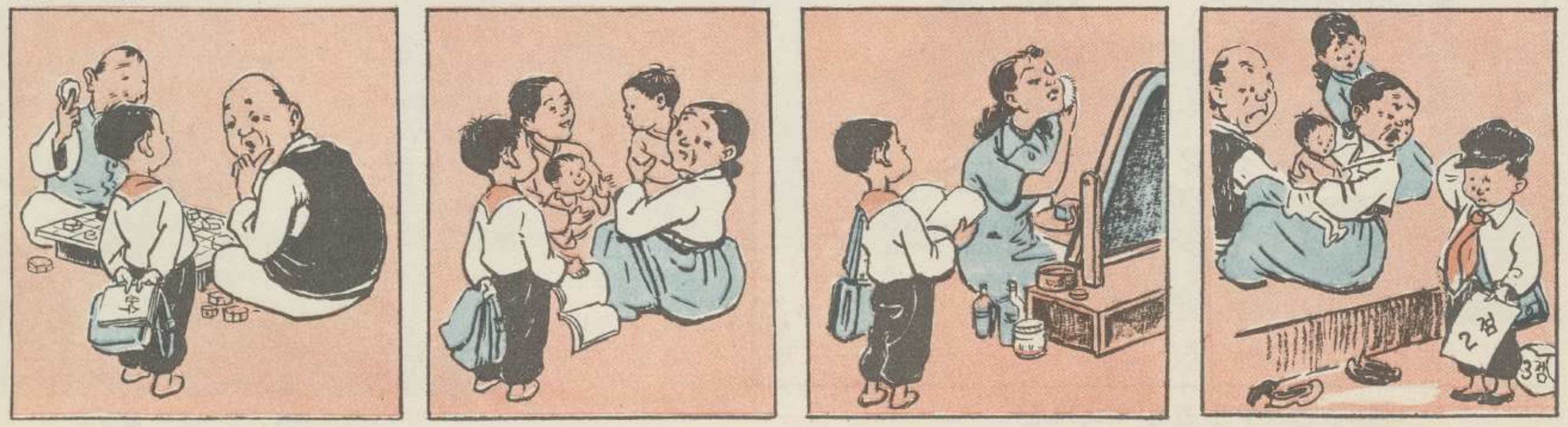
『어머니 참 모르느만요, 그건 부기원이 할 일이 아니예요』

그렇나 조합일이 바쁜때 부기원이라도 짬을 내어 좀 도와주면 어떨까?

리 운봉

무관심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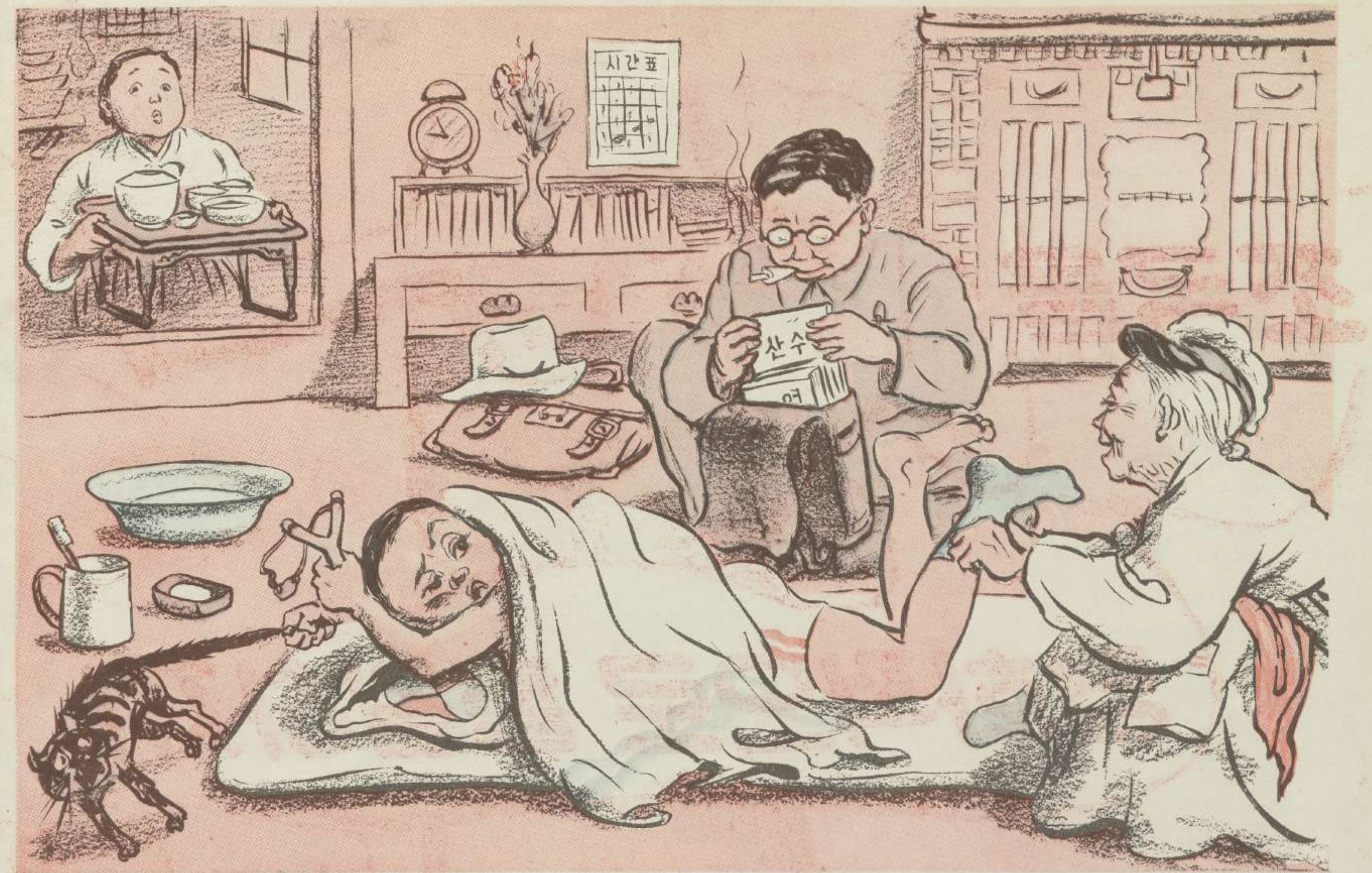
안창수 그림



아버지는 장기 노리에 바쁘고 어머니는 애기와 놀기에 바쁘고 누나는 놀러 나가기에 바쁘고 수돌이는 2점 맡기에 바빴다

해로운 사랑

백인균 그림



— 얘야! 책이랑 다 넣어 놨다 빨리 일어나 세수하자

일부 부모들 중에는 아이들이 귀하다 하여 그들이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시중해 주는 현상이 있다。 이런 현상은 그들이 무어나 부모들이 해 주려니 하는데서 게을러지며 자립성이 없어지는 나쁜 버릇을 붙여주는 해로운 사랑이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일부 일'군들 가운데는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이라 하여 경각성 없이 주요한 국가 기밀을 루설하는 경향이 있다。

문 성 수 그림

—이건 당신한테만 말하는데…

—이건 영수 엄마니까 믿구 말하는데 누구에게두 말하지마우…

한심한 일

박 서봉 동무가 지도하는 제강소 이간 직장의 벽은 원래가 철판으로 되여 있었는데 오랫동안 수리되지 않은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

갑자기 비가 내려서 로동자들이 가마니로 벽을 막는데 미처 손이 돌지 못할 때면 작업 현장으로 비가 뿌려 들어서 기중기를 운전하지 못하여 생산에 지장을 주는 때도 있었다。계속 이 상태로 방치 된다면 앞으로 닥쳐오는 우기에는 생산을 중지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 될 것은 뻔한 일이다。

우기를 념려하여 이미 준비된 철판으로 벽을 세우자고 로동자들이 투차 제기 했으나 지도 일군들은 "대보수때 완전히 수리해야지 공연히 미리부터 서둘러서 왜 로력과 자재를 랑비 한단 말이요" 하고는 이들의 정당한 의견을 묵살하고 말았다。

그러나 결과는 비가 올때마다 가마니를 찾느라고 뛰여다니다보니 오히려 더 많은 로력과 자재가 소비 되였으니 이건 절약이아니라 랑비도 이만 저만 … 더우기 우기 대책에 조금도 고려가 돌려지지 않으니 더욱 한심한 일…

고집 때문에…

기계를 서투르게 다루는 것 보다는 호미로 매는 것이 손에 익어서 능률이 더 날거요—중화군 명월리 «선진»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일'군들의 주장은 이러하였다。

관리 일'군들의 지도에 따라 조합원들은 부지런히 호미를 놀리기는 하였으나 선진 제초기를 사용하는 이웃 협동 조합에 비해서 그 진도는 계속 뒤떨어졌다。

—이번 제초에서 우리 농업협동조합이 선진이 돼야죠。

—암 이름도 선진 농업 협동조합인데 선진이 돼야지。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기계를 씁시다。

—여보 이것 저것 쓰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제초는 무엇보다 시간을 다투는법이요。

이미 다른 조합들에서는 두벌 김매기에 착수 했건만 이 «선진» 농업협동 조합만은 초벌도 끝나지 않아 군내에서도 제일 락후한 조합의 하나로 되였으니 조합 관리 일'군들의 낡은 고집의 후과는 바로 이러하다。

한가지만 생각하다 보니

암석 굴착에서 습식 착암기를 사용하면 로동자들은 깨끗한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고 따라서 높은 생산 능률을 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당장 눈앞의 생산에만 급급한 개생 광산 지도 일'군들은 여전히 낡은 방식대로 사업하고 있다。

—이때까지 습식 착암기를 사용 안했어도 생산을 보장 했는데… 하고 광산 지도 일'군들은 협소하게 생각할뿐, 로동자들의 작업 조건이며 직장내 생산 문화에 대해서는 고려를 부족하게 돌리고 있다。

그러다가 로동자들의 정당한 제의에 못이겨 형식적이나마 고무 호스는 장만하였으나 습식 착암기를 만들 자재를 완전히 보장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로동자들은 하는 수 없이 습식 착암기 대신 호스로 물을 바깥으로 부렸기 때문에 먼지는 먼지대로 나면서 작업장은 물때문에 질퍽 거렸다 그래서 로동자들은 발에 무좀까지 생긴다고…

장 필 순

편집 위원 장 진 광(미술출판사 주필) 한 석 기 김 선 나 박 기 성 송 용 남
발행소 활 살(시사 만화 잡지)사
인쇄소 미 술 인 쇄 공 장
인쇄 1956. 6. 10. ㄱ—70433
발행 1956. 6. 15. (값 50 원)

장진광 그림